소취가공

냄새에는 향기로운 쾌감을 주는 것과 악취로 표현되는 불쾌감을 주는 것이 있다. 악취에는 변기와 분뇨에서 나는 암모니아, 체내에서 발생하는 땀과 발에서 나는 이소(iso) 길초산 및 초산, 물고기 부패시에 나는 트리메틸아민, 달걀과 우유 등의 단백질 부패시에 나는 황화수소, 야채 부패시에 나는 메틸메르캅탄이 있다.

항균방취가공은 균의 번식을 억제시켜 땀에서 나는 냄새의 발생을 억제시켜 주는 방법이지만 배변·배뇨, 체취와 같이 이미 발생한 냄새를 없애주는 소취가공(deodorant finish)이 개발되어 의류에 부착하여 흡착된 담배냄새 등의 불쾌한 악취성분을 없애 주는 가공이기도 하다. 또 커텐에 소취가공을 행하여 실내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모든 악취성분에 효과가 있는 만능 소취가공제는 없고, 악취성분 및 용도에 따라 소취가공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취가공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금속프탈로시아닌 등의 가공제로 산화반응을 시켜 악취물질을 무취화 시킨다.

②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가공제로 취기를 중화 반응시켜 악취를 없애준다.

③ 취기를 흡수하는 물질(실리카겔 등)을 섬유에 부착하거나 식물에 있는 소취 효과를 갖는 물질(차 잎에서 추출)을 사용한다.

④ 활성탄이나 제올라이트 등의 흡착제를 섬유 속에 혼합 방사하여 탈취 섬유를 만들거나 세라믹계 흡착제를 섬유의 표면에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다.

⑤ 향료화합물의 화학반응에 의해 소취 시킨다.